

IIRI Online Series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주변국 정세

인 남 식

국립외교원 교수, 아중동연구부장

2021. 8. 24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주변국 정세



인 남 식 | 국립외교원 교수, 아중동연구부장

탈레반의 귀환

미군 철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치하로 회귀했다. 오마르 사드르(카불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비판은 통렬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맥락과 정치 문화에 연동시켜 국가 건설(state-building)을 시도하지 않고, 서방의 모델을 이식하려 했음을 지적한다. 그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치역량이나 자율성은 거의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대미 의존도만 높여 실패로 귀결되었다. 수도 카불을 제외한 북부 다종족 분포지역과 남부 파슈툰족 거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과 나토(NATO)군의 대(對)탈레반 작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부족 네트워크 및 협곡 기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게릴라 전을 펼치는 탈레반을 제압하기란 어려웠다. 20년간 2,442명의 미군 병력 희생과 2.26조 달러 전비를 사용하고도 미국은 8만 병력 탈레반을 궤멸시키는 데 실패했다.

오바마 이후 미국은 아프간 철군 추진 여부를 검토하며 논쟁을 거듭했다. 2020년 2월 29일 트럼프 정부는 탈레반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회담을 열어 철군에 합의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이행했다. 후폭풍은

거렸다. 탈레반의 진격은 예상외로 빨랐고, 아프간 정부군은 예상외로 무기력했다. 결국, 8월 16일 탈레반은 카불에 입성했다. 무도한 이슬람 원리주의 통치 이념의 재현을 우려한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불안에 빠졌고 카불 공항을 통해 해외로 피난하려는 이들의 비극적 장면이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탈레반 집권 관련 주변국 역학관계

크게 네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역학관계, 둘째 지역 분쟁의 시각, 셋째 종교 이념의 확산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간안보 위협 등이다.

① 미·중 갈등: 중국의 부담 증대

먼저 미군의 전격 철군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중국에게 고민을 던진다. 그동안 미국의 여타 지역에서의 개입을 주권 침해라며 비판해왔던 중국이지만, 미군의 아프간 주둔만큼은 지속되기를 바랐다. 아프간의 혼돈이 자칫 무정부 상태로 이어져 내전이 전개될 경우 접경국 중국에게 위협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등 신장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이 아프간 혼란과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내전으로 국경 통제가 허물어지면 중국과 맞닿은 와칸 회랑 및 타지키스탄 등을 통해 분리주의 세력의 중국 접근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이유는 간명하다. 더 이상 미군 병력 희생과 전비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한 전쟁의 부담으로부터 탈피하고, 현실적인 집권 세력인 탈레반의 변화를 설득, 아프간 분점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안정화가 실패하더라도 접경국 중국이 아프간 혼돈의 부담을 짚어질 수밖에 없다는 복안도 담겨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연설에서 바이든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아프간 철군을 이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현 상황을 중국의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아프간/파키스탄-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의 확장 동력을 짚는 이들도 있다. 희토류 개발 가능성도 운위된다. 그러나 이는 아프간 안정화를 전제로 한다. 정무적으로 위협 요인이 더 크다. 중국이

아프간 집권 탈레반 세력을 지원하며 연대를 공고히 할 경우, 자칫 반(反)탈레반 아프간 저항 세력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탈레반 지지를 선불리 선언하기 어렵다. 일단 최대한 아프간 정국과 거리 두기를 하며 국경 통제에 우선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② 지역 분쟁: 인도-파키스탄 전장화(戰場化) 가능성

아프가니스탄은 지역 분쟁의 차원에서 인도-파키스탄 갈등의 경합지 내지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탈레반의 종족 배경은 파슈툰족이다. 주로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파키스탄 북부에 분포하고 있다. 다수가 파슈툰인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 탈레반과 태동기부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미군과 나토군의 탈레반 소탕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탈레반의 파키스탄 연계다. 특히 파키스탄 정보 당국(Inter-Services Intelligence, ISI)의 존재감이 크다. 향후 아프간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설 경우, 파키스탄의 영향력 강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도가 긴장하고 있다. 자칫 파키스탄-아프간 연대가 강화되고 군사, 정보협력 관계가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파키스탄과의 분쟁 당사자인 인도의 안보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인도에서 유학한 아프가니스탄 파슈툰족 사회 지도층 인맥을 저인망식으로 접촉,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탈레반에 대해서도 유화 메시지를 전달,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중이다. 향후 역내 두 핵무기 보유국가가 아프간에서 벌이는 힘겨루기가 주목된다.

③ 이슬람 확산: 접경 중앙아시아 국가 및 이란의 고민

탈레반은 아프간 내에서 이슬람 에미레이트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테러를 획책하는 알카에다 등 폭력적 극단주의나 혁명 수출을 국시로 하는 이란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인근 국가들은 벌써부터 탈레반 이슬람 사상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임하는 이란 역시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수니파 근본주의 탈레반 세력의 반(反)시아 정서가 자칫 이란 안보에 위협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에브라힘 라이시 신임 이란 대통령은 탈레반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아프간 북부 중앙아시아 3개 국가들은 이슬람 정치 운동이 자국 국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선명한 극단주의 통치이념을 가진 탈레반 집권에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안디잔 사태로 이슬람 정치 운동과 극심한 갈등을 겪은 우즈베키스탄의 긴장 수위가 높다. 한편 중앙아에서 영향력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의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슬람 정치세력의 확산이 중앙아를 통해 러시아 연방 내 이슬람 분리주의와 연계될 가능성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④ 글로벌 인간안보의 위협: 난민, 테러, 마약, 여성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서서 인간안보의 핵심 쟁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중첩될 전망이다. 이미 난민들은 북쪽 국경을 넘어 타지키스탄으로, 서쪽 이란과 남쪽 파키스탄 등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으로 통합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는 유럽은 긴장하고 있다. 터키, 그리스 등 중동과 접한 국가들은 난민 대응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테러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 형해화 되었다지만 알카에다의 거점이었던 아프간의 경험을 되살리면 안심하기 어렵다. 특히 20년간 미국과 싸워 결국 물러나게 했다는 탈레반 전사들의 승리 선전전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다시 고무시킬 가능성이 있다. IS 및 알카에다 잔당들이 탈레반에 가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설도 있다. 조직적으로는 아프간 내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테러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탈레반의 행보에 따라 아프간이 테러의 허브로 다시 전락할지 여부가 달려 있다. 동시에 마약(아편/헤로인)의 대외 유출 가능성, 여성 인권 탄압의 이슈가 복합되어 아프간이 자칫 인간안보 위협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향후 전망

상황은 유동적이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다. 탈레반이 20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변화의 계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낙관론의 근거다. 실제로 탈레반은 변화를 약속했다. 부역자들에 대한 대사면, 이슬람 율법 안에서 여성 인권의 보장, 여타 정파와의 공존 모색 등을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외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정통성 있는 정부로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비관론이 더 우세하다. 정교일치를 신봉하는 탈레반의 통치 이념상 제 정파와의 공존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낮다. 그리고 지도부의 결정을 지역 방계 조직 탈레반이 순응하며 따르리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단일 위계 조직이 아니라 이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미 여성에 대한 위해와 폭력이 선을 넘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비관론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일단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아프간의 평화적 안정화, 즉 탈레반의 변화 유도를 통한 안정적 미래 기반 구축이 관건이다. ‘제국의 무덤’, 즉 지정학적 세력 경쟁의 장이었던 아프간은 이제 ‘인간 안보 위협의 요람’이 될 수 있다. 범세계적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 아프간발 위협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기에 공조의 이유와 동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끝/

저자 소개

인남식 교수는 영국 더럼대학(University of Durham) 중동이슬람연구원에서 중동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 및 아중동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중동 이슬람권 국제정치, 미국의 대외정책,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분쟁의 이해(2000)”,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과 함의(2004)”, “파키스탄과 미국의 딜레마(2008)”, “자발적 네트워크 테러리즘의 등장과 의미(2009)”,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2011)”, “현대외교정책론(2016)”, “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 (2020)”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Email: in@mofa.go.kr)

